

特輯

世界石油情勢를 진단한다

# 世界石油市場 과 非OPEC 國家의 挑戰

宋駿英

〈韓國石油開發公社 企酬調查部〉

## I. 머리말

80년대에 들어 비OPEC 산유국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커지고 있다. 이것은 OPEC 諸國의 供給점유율의 현저한 후퇴로 반증되고 있기도 하다. 70년대 전반, 산유국에 의해 조광권을 빼앗긴 채 철수해야만 했던 메이저들은 대체로 非OPEC 지역, 특히 정치적 리스크가 적은 선진국 석유개발 사업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油價가 올라가자 생산 코스트가 비싼 北海, 알라스카 North Slope의 개발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에 따라 英國, 노르웨이, 멕시코,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이 대폭적인 증산을 달성하였다.

80년대에 들어 非OPEC 원유는 계속적으로 증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OPEC 원유는 사상 최고수준이었던 1979년 3160만b/d로 부터 83년 1/4분기에는 절반에 가까운 1,630만b/d로 격감하였다.

OPEC 원유와 非OPEC 원유의 생산수준은 82년 1/4분기에 거의 같은 수준으로 되었으며, 그후 非OPEC 원유가 오히려 OPEC 원유량을 상회하기 시작했고 그 차이의 폭은 점차로 넓어져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1).

非OPEC 산유국의 비중이 이처럼 커지게 되자 이들이 시장구조에 주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83년 3월 런던 OPEC 총회에서 유가 \$ 5 / bbl 인하 결정을 非OPEC의 도전의 결과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84년에 들어 두차례에 걸쳐 나타났던 유가하락 사태에는 非OPEC 산유국의 영향이 구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84년 7월 현물유가의 하락과 10월 노르웨이의 전격적 유가인하조치에 따른 유가의 혼미상이 그것이다. 여기에 소련과 이집트의 현물유가 연동제에 의한 판매정책을 포함시켜 보면 OPEC은 분명히 非OPEC 산유국들로부터 큰 도전을 받고 있는 셈이다.

### 非OPEC 산유국의 도전

그런데 문제는 도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도전이 언제까지 어떠한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냐에 있다. 혹자는 요즈음의 국제석유시장 양상을 놓고 유가가 과거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던 것이 이제 시장질서에 의해 결정되게 됐음을 크

(表-1) 世界 原油生産 및 OPEC 占有率 推移

(單位: 千B/D, %)

資料 區分 年度	M E R 資料			O E T 資料			P E 資料		
	世界	OPEC	占有率	世界	OPEC	占有率	世界	OPEC	占有率
1979	62,535	30,928	49.5	65,131	30,929	47.5	64,984	30,929	47.6
1980	59,538	26,891	45.2	62,084	26,878	43.3	62,178	26,880	43.2
1981	55,900	22,646	40.5	58,355	22,541	38.6	58,260	22,490	38.6
1982	53,162	18,784	35.3	55,437	18,492	33.4	55,167	18,498	33.5
1983	N. A	N. A	N. A	55,328	17,401	31.5	N. A	17,467	N. A
1983. 1	51,742	16,415	31.7	54,406	16,511	30.3	54,613	16,609	30.4
2	49,453	14,370	29.1	51,967	14,525	28.0	52,000	14,389	27.7
3	50,163	15,000	29.9	52,180	14,892	28.5	52,452	14,759	28.1
4	50,895	15,620	30.6	53,060	15,582	29.4	53,633	15,810	29.5
5	51,990	16,945	32.6	54,694	16,980	31.0	55,194	17,395	31.5
6	52,550	17,435	33.2	55,278	17,468	31.6	56,200	17,452	31.6
7	54,450	18,770	34.5	56,459	18,493	32.8	56,710	18,565	32.7
8	54,265	18,630	34.3	56,722	18,812	33.2	56,903	18,766	33.0
9	54,400	19,000	35.1	57,304	19,105	33.3	57,333	18,927	33.0
10	54,075	18,780	34.7	57,106	18,740	32.8	56,968	18,878	33.1
11	53,920	18,435	34.2	57,008	18,751	32.9	N. A	19,067	N. A
12	N. A	N. A	N. A	57,457	18,759	32.6	N. A	18,750	N. A

〈資料〉「Monthly Energy Review」 83. 12

「Oil & Energy Trends」 84. 2

「Petroleum Economist」 84. 3

게 강조하고 있고, 또 흑자는 OPEC의 붕괴가 멀지 않았다고 내다보기도 한다. 다시 말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비OPEC산유국에 의해 영향받는 수급현상의 특징이 국제석유시장의 구조를 바꿀지 모른다는 얘기가 된다.

非OPEC 산유국의 도전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의 문제는 어쩌면 수치의상의 문제 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세계 석유수요는 어떤 추세로 변화해갈 것이며, OPEC, 非OPEC 산유국의 예상생산량, 매장량의 대비, EOR(Enhanced Oil Recovery)의 전망등을 기초로 한 수치상의 계산만 정확히 한다면 그 답은 쉽게 얻어질는지 모른다. 또 이와 같은 계산상의 추측과 예상은 많은 국제석유산업, 또는 국제적인 권위를 갖는 연구기관에 의해 이미 시도되었고 그들의 전망은 널리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전망중에 대표적인 몇가지를 소개하고, 이어 현실적인 면에서 非OPEC 산유국의 역할이 국제석유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 그 영향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 II. 長期석유수급전망에서의 非OPEC산유국의 위치

최근 1-2년 사이에 Shell, Conoco, Texaco등이 장기석유수급 전망에 대한 판단서를 잇달아 발표하였다. 그중에 84년 1월 발표된 Texaco의 「자유세계 에너지전망」은 비OPEC산유국의 역할에 관해 다음과 같이 예측하고 있다.

- 非OPEC 산유국의 산유량은 北海 및 미국에서의 감산분이 다른 지역의 증산분에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非OPEC 산유국의 산유량은 80년대 후반에 피크에 달하여 이후 점차로 저하한다.

- 공산권으로 부터의 수출은 82년의 160만b/d로 부터 90년에는 50만b/d로 감소, 95년 전후에 완전히 없어진다.

● 자유세계의 총에너지 수요(석유환산)는 1982년 9370만b/d로 부터 2000년에는 1억 3530만b/d로 약 44% 증가하는 반면, 석유수요는 4550만b/d에서 5540만b/d로 증가한다.

● 이 석유수요 가운데 非OPEC의 연평균 공급량은 1990년 2410만b/d(合成원유 50만b/d 포함), 2000년에 2100만b/d(합성원유 100만b/d)로 줄어든다.

결국 1990년 부터 2000년 까지의 10년간 비OPEC의 공급량은 원유 베이스 360만b/d나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전망에 의하면, 서기 2000년의 자유세계 소비량이 5540만b/d, 이중 非OPEC의 공급이 2100만b/d이기 때문에 OPEC에 대한 의존량은 3440만b/d가 되며 그 점유율은 60%를 넘게 된다. Texaco는 이와 같은 분석을 기초로 하여 「세계시장에서의 OPEC의 중요성은 전례없이 높아지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모든 석유관계 예측이 Texaco와 일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今年 10월 런던소재 석유관계 자문회사인 Petroleum Economics社의 전망은 전혀 다르다. 동사의 전망은 금세기말까지 석유가격은 45~50弗로 인상될 것이나 OPEC의 석유수출은 크게 증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 회사의 전망안에 의하면, OPEC의 석유생산량이 2000년까지 2200만b/d로 증가할 것이나, 증산분의 2/3이상이 OPEC 역대 수요증가에 충당될 것이며, 멕시코, 아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한 비OPEC 산유량의 증가와 소비국의 소비절약 등에 의해 실질적인 대OPEC 수요증가는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망은 Texaco의 전망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참고로 Natural Resources Forum에 게재됐던 몇가지 전망안을 도표로 소개하고자 한다.

### Ⅲ. 1984년 국제석유시장에서의 OPEC, 非OPEC 國家의 경합양상

지난 9월 7일 IEA가 발표한 「국제석유시장 동향보고」는 4/4분기 국제석유시장 양상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즉, 「4/4분기 자유세계 총석유 수

〈表-2〉 OECD의 豫想石油生産量

(單位: 百萬배럴/日, NGL, 合性燃料, 原油)

	1982	1990	1995	2000
美 國	10.2	9.9-10.5	7.0- 9.0	6.0- 8.0
캐 나 다	1.5	1.2- 1.6	1.2- 1.6	1.0- 1.5
英 國	2.2	2.1- 2.4	1.7- 2.2	1.5- 2.0
노르웨이	0.5	0.4- 0.8	0.6- 1.0	0.6- 1.3
其 他 (유 럽)	0.3	0.3- 0.5	0.3- 0.6	0.3- 0.6
濠 洲 / 뉴질랜드	0.4	0.3- 0.6	0.5- 0.9	0.5- 1.2
Synthetic Liquids <sup>1)</sup>	0.2	0.2- 0.4	0.7- 0.9	1.5- 2.5
OECD 計	15.3	14.4-16.8	12.0-16.2	11.4-17.1

註: 1) Liquids form coal, tar sands, shale, biomass

〈資料〉 Natural Resources Forum

〈表-3〉 非OPEC開途國의 豫想 石油生産量

(單位: 千배럴 / 日, 原油, NGL)

	1982	1985	1990	1995	2000
멕시코	3.0	3.5- 4.0	4.0- 4.5	4.2- 5.2	4.5- 5.6
이집트	0.7	0.6- 0.9	0.5- 1.0	0.4- 0.8	0.4- 0.7
아르헨티나	0.5	0.5- 0.7	0.4- 0.8	0.3- 0.7	0.3- 0.7
인도	0.2	0.4- 0.6	0.4- 0.7	0.4- 0.6	0.4- 0.6
말레이시아 / 브루나이	0.5	0.4- 0.6	0.3- 0.7	0.3- 0.7	0.3- 0.7
브라질	0.2	0.2- 0.4	0.3- 0.5	0.3- 0.6	0.2- 0.7
其 他	1.6	1.9- 2.5	2.0- 2.7	2.1- 3.1	2.2- 3.9
計	6.9	7.5- 9.7	7.9-10.9	8.0-11.7	8.3-12.9

〈資料〉 Natural Resources Forum

〈表-4〉 非OPEC의 豫想 總石油生産量

(單位: 百萬배럴 / 日, 原油, NGL)

	1982	1985	1990	1995	2000
OECD	15.3	14.4-16.8	12.5-16.7	12.0-16.2	11.4-17.1
LDCs	6.7	7.7- 9.2	8.3-11.1	9.0-11.7	9.5-12.5
非OPEC計					29
(excl.CPEs)	22.0	22.1-26.0	20.8-27.8	21.0-27.9	20.9-29.6
CPEs	14.6	12.6-14.0	10.6-13.8	10.5-13.4	10.5-13.0
非OPEC計	36.6	34.7-40.0	31.4-41.6	31.5-41.3	31.4-42.6

註: Synthetic liquids from coal, tar sands, shale, biomass included only for OECD.

〈資料〉 D. Arpejis MIT Energy Laboatory; World Energy Outlook, IEA, OECD, Paris, 1982. Chase Manhattan Bank, March

(表-5) 非OPEC의 石油生産能力(83. 1. 1 現在)

	Proved Reserves (billion bbl)	Production (billion bbl)	Prod.Potential Reserves/ Production Ratio(years)
OECD			
美 國	29.8	3.2	9.3
캐 나 다	7.0	0.4	17.5
英 國	13.9	0.8	17.4
노 르 웨 이	6.8	0.2	34.0
濠 洲	1.6	0.1	16.0
OECD計			
Producers	59.1	4.7	12.6
LDCs			
멕시코	48.3	1.0	48.3
이집트	3.3	0.2	16.5
아르헨티나	2.6	0.2	13.0
앙골라	1.6	0.04	40.0
브라질	1.8	0.09	20.0
콜롬비아	0.5	0.05	10.0
인도	3.4	0.14	24.3
말레이시아 / 브루나이	4.5	0.17	26.5
오만	2.7	0.12	22.5
케루	0.8	0.07	11.4
튀니지	1.9	0.04	47.5
Total main LDC producers	71.4	2.1	33.6
共産圈			
소련	63.0	4.5	14.0
中共	19.5	0.7	27.7
其他	2.6	0.2	13.0
共産圈計	85.1	5.4	15.7
非OPEC計	215.6	12.2	17.6

〈資料〉 Oil and Gas Journal

오는 3/4분기의 4,440만b/d에서 4,670만b/d로 5% 증가할 것이다. 이중 非OPEC 산유량은 3/4분기 2,690만b/d에서 2,710만b/d로 20만b/d 수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4/4분기 대OPEC 원유수요는 3/4분기의 침체를 벗어나 생산할당량 1,750만b/d 보다 100만b/d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IEA의 견해였다.

한편 같은 시기(9월 3일)에 발행된 유력한 석유전문주간지 PIW(Petroleum Intelligence Weekly)는 84년 전체의 석유수급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84년중 석유수요의 증가는 100만b/d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며 이중 대부분이 非OPEC 산유국의 증산분으로 충족될 것이다. 국가별 증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북해유전 : 83년에 비해 40만b/d 증산추세에 있으며, 이중 30만b/d는 영국이, 10만b/d는 노르웨이의 증산분으로 충당될 것이다.

●인도·브라질 : OPEC의 주요 고객이었던 양국은 자체산유량을 크게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브라질의 경우 4/4분기중 55만b/d, 85년에는 60만b/d를 생산하여, 83년에 비해 27만b/d를 증산하게 될 것이며, 인도는 금년말 65만b/d를 생산, 83년에 비해 18만b/d를 증산하게 될 것이다.

●아메리카대륙 : OPEC은 미국이라는 잠재시장에서 30만b/d 정도의 분량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는 4/4분기중 10만b/d를 미국시장에 추가 수출할 계획이며, 멕시코는 자기 나라의 수요감퇴에 따라 3/4분기말까지 이미 83년 대미수출 총량에 맞먹는 물량을 수출하였다. 미국의 산유량은 변화가 없었으나 천연가스의 증산으로 10만b/d 수준의 원유수요 감퇴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이집트·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4/4분기중 50만b/d 생산에 육박, 작년비 10만b/d 증산을 이룰 것이며 이집트는 작년비 13만b/d를 증산하였고 금년말 생산량은 85만b/d에 달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두가지 評價를 놓고 볼 때 IEA의 경우는 금년 4/4분기 수요만을 대상으로 전망한 것이고, PIW의 경우는 84년 전체를 놓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계절적 요소등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수치상의 직접적인 대비평가는 어려운 일이다. 다만 이 두가지 통계에서 우리는 국제 석유시장을 놓고 OPEC과 비 OPEC의 경쟁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세계원유생산중 OPEC이 차지하는 점유율에 대한 통계는 발표기관과 집계방법에 따라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표-6〉은 세계 원유생산중 OPEC이 점하는 비율 추이에 관한 몇가지 권위있는 자료의 통계표이다.

〈表-6〉 1984년 非OPEC 산유량 증가추이

國 名	1983末	1984중반	1984末	증가폭	1984년평균	1983년평균	증가폭
브 라 질	430	480	550	120	490	330	160
이 집 트	720	810	850	130	800	700	100
말 레 이 지 아	370	440	460	90	430	370	60
印 度	470	550	650	180	560	430	130
西 아 프 리 카*	440	465	490	50	465	405	60
英 國	2,500	2,400	2,750	250	2,550	2,270	280
노 르 웨 이	700	700	700	...	700	610	90
美 國	8,620	8,682	8,620	...	8,655	8,655	...
캐 나 다	1,353	1,400	1,400	47	1,400	1,357	43
멕 시 코	2,690	2,820	2,800	110	2,750	2,688	62
其 他	2,868	2,683	2,868	...	2,863	2,858	5
計	21,161	21,430	22,138	977	21,663	20,673	990

註 : \* Angola, Cameroon, Congo and Zaire

### 油價下落的 파문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수치상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요컨대 이러한 통계수치가 현실 국제석유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나타내느냐 하는 데 있다.

84년중 석유가격은 두차례에 걸쳐 큰 흥역을 치렀다. 한번은 7월초 70차 OPEC총회를 전후한 시점에서의 유가하락이었고 다른 한번은 아직도 그 여진(餘震)이 채 가서지 않고 있는 노르웨이 유가 인하 결정 이후의 일련의 사태이다. 이 두가지 사태는 어떻게 보면 각기 다른 동기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하나의 맥락에서 파악해야 한다. 이 사태의 원인은 OPEC회원국의 할당량 초과생산에 따른 4년여에 걸친 과잉공급, 그리고 非OPEC 산유국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영향력의 확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태발생 이후 OPEC의 대응책을 살펴보면 상황에 대한 이해는 더욱 선명해진다.

금년 7월 10일 제네바에서 열렸던 제70차 OPEC총회에서는 유가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생산할당량 준수를 촉구함과 동시에 각국 석유 상급으로 3개 순방외교단을 구성하여 산유국 설득 외교를 펴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이 3개 순방외교단중 2개팀은 OPEC회

원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팀은 비OPEC 산유국을 방문토록 되어 있었다. OPEC회원국 상호간에 자국의 석유상이 참가하는 팀이 다른 회원국을 방문하고, 다른 회원국 석유상이 참가하는 팀이 자기 나라를 방문한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회원국간 결속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딘가 어색한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볼 때, 이 방문외교의 초점은 역시 비OPEC 산유국의 설득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OPEC의 순방외교

非OPEC 산유국 방문단 인솔을 맡은 사람은 사우디의 야마니 석유상이었다. 이 방문단이 첫번째로 방문한 국가가 영국이었으며 이어 말레이시아, 브라질, 멕시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 순방외교의 목적은 이들 산유국들이 생산량 증대를 자제해 줌으로써 국제적 과잉공급 상태를 해소하고 유가를 안정시키자는 설득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약 2개월에 걸쳐 진행된 이 순방외교가 끝난지 불과 두달이 지나지 않은 10월 15일, 노르웨이가 유가를 전격 인하함으로써 OPEC의 노력은 아무런 효력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말았다.

물론 노르웨이는 순방 대상국은 아니었다. 그러나 노르웨이의 석유판매정책은 늘 영국의 정책을 추종하는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에서 볼 때, 노르웨이 단독 결정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노르웨이의 발표가 있고 불과 2日만에 영국이 이를 뒤따른 점으로 보아, 양국간에는 충분한 협의 또는 사전이해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태를 수습하는 OPEC의 태도에 있었다. OPEC은 회원국 상호간의 사전접촉을 거쳐 긴급석유상회의(뒤에 임시총회로 전환)를 소집하였는 데, 이때 非OPEC 산유국에 대한 그들의 태도였다. OPEC의 맹주적 입장에 있는 사우디는 회원국들의 공동행동을 촉구함과 동시에 멕시코,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 非OPEC 산유국의 공동참가를 호소하였다.

결국 최종적으로 임시총회에 참가한 것은 멕시코와 이집트(옵저버 자격)에 불과했고 또 이들 국가들이 참가한 동기도 각각 별개의 의미를 내포하고는 있지만, OPEC이 중대한 정책결정에 앞서 Pro-OPEC적인 입장을 보이는 수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기민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은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하겠다.

#### 산유국과 소비국의 대화추진도

「Group-13」이라는 석유관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있다. 당초 OPEC을 위해 일하던 전문가 그룹과 소비국측의 전문가 그룹이 상호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성된 산유국과 소비국의 권위있는 전문가 그룹으로 이·이戰이 한창이던 지난 6월에는 전황악화에 따른 Panicbuy현상의 자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여 우리 기억에 남아있기도 한 영향력 있는 그룹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그룹이 주장하는 바는 현재의 유가약세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산유국과 주요 소비국이 대화를 나누어 산유량과 소비량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들의 주장은 OPEC측에도 충분히 전달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또 OPEC 내부에서도 이러한 충고를 경청하는 세력이 적지않다고 한다.

그러나 OPEC의 공식적 입장은 이와 다르다. 다시 말해 산유량의 조절만으로도 세계석유시장을 콘트롤 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

서 OPEC에 동조할 수 있는 주변 산유국들을 하나하나 포섭해 나감으로써 생산 카르텔로서의 OPEC의 입장을 굳혀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4년 국제석유시장은 그들의 시도를 기다려 주지만은 않았다.

#### IV. 맺는말

서두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예상산유량을 기초로 볼 때, 非OPEC 산유국의 역할은 수치의 외해 명백하게 들어난다. 다시 말해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계의 OPEC석유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커지리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10年, 20年후가 아니다. 석유의 생산량은 産油國의 조세정책, 개발투자 등에 의해 적지않은 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만약 非OPEC 산유국이 향후 수년내에 집중적인 증산을 이루게 될 경우 이것이 국제석유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산유량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도 훨씬 크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강력한 생산 카르텔로서의 OPEC의 입장이 약화되고 국제석유시장이 Seller's Market에서 Buyer's Market으로 전환되면서 OPEC의 존립문제가 제기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간과해서는 않될 사항은 OPEC가 있기에 非OPEC의 문제가 거론된다는 점이다. 만약 OPEC가 정말로 붕괴된다면 석유시장은 공급과잉이 일거에 표면화되어 유가는 견잡을 수 없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과도한 유가의 하락은 많은 한계유전의 생산을 중지시킬 것이며 합성연료개발 등에 재투자되는 자금은 대폭 삭감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석유 이외의 에너지는 점차로 가격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은 결국 작은 자국에도 유가의 폭등을 초래하기 쉽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非OPEC 산유국의 움직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 이들 국가들의 역할이 유가안정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이다. 한마디로 非OPEC 산유국의 역할은 OPEC의 전횡과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견제세력으로서의 기능이다. 그리고 여기에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목표는 이러한 견제가 국제석유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라 하겠다. \*